

澄觀의 五臺山 入山과 『華嚴經疏鈔』의 著作

慧南(盧在性)

譯經學科 教授

本 논문은 本校 『論文集』 제6집에 수록한 拙論 「清涼澄觀의 傳記에 대한 再考」의 연속이다. 소론은 『華嚴經』 諸菩薩住處品の 經文에 인도되어 五臺山에 올라 17年 間이나 산 속에 묻혀 參禪와 기도 속에서 『華嚴經疏』를 짓고 그것을 다시 해석하는 『演義鈔』를 짓게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저술에 임하는 그의 마음가짐과 著述의 當爲性을 주장하는 열 가지 이유를 요약하여 놓았다. 여기서 澄觀이 말하는 著述의 當爲性은 주로 慧苑의 『續華嚴經略疏刊定記』를 비판하면서 자신이 『華嚴經疏鈔』를 짓는 것은 慧苑의 잘못을 바로잡아 法藏의 古義를 回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澄觀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어 한때 크게 유행하던 『續華嚴經略疏刊定記』는 점점 빛을 잃게 되어 著者인 慧苑은 華嚴宗의 列祖로부터 밀려나고 澄觀은 華嚴宗 第四祖로 자리 매김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近世 日本의 佛敎學者인 板本幸男에 의해서 慧苑과 그의 저서는 再評價되고 있음을 紹介하였다.

澄觀의 五臺山 入山과 『華嚴經疏鈔』의 著作

慧南(盧在性)

譯經學科 教授

I. 五臺山 入山과 『華嚴經疏』의 著作

1. 五臺山에 오름

2. 『華嚴經疏』의 著作

II. 『演義鈔』의 著作에 대해서

III. 著述의 當爲性

I. 五臺山 入山과 『華嚴經疏』의 著作

1. 五臺山에 오름

澄觀이 五臺山에 오른 시기와 外典 學習의 前後 關係에 대해서는 異說이 많다. 『宋高僧傳』은 大曆 10년에 蘇州에 가서 湛然 法師로부터 天台止觀과 法華, 維摩 등의 經과 疏를 학습하였다고 기술한 다음에 또 牛頭山 惠忠 禪師와 徑山法欽 禪師와 洛陽의 無名 禪師로부터 南宗禪을 咨決하고, 다시 慧雲 法師를 뵈고 北宗의 玄理를 證得하고 澄觀이 스스로 자기에게 일러 말하기를 ‘五地聖人이 몸은 眞如를 證得하고, 마음은 佛境에 깃들이되 後得智 가운데 世俗의 생각을 일으켜 世間の 技藝를 배운다’고 하였다. 하물며 나는 배우는 지위에 있는 입장이다. 이 마음을 잊으랴. 하고 드디어 經, 傳, 子, 史와 小學, 蒼雅와 天竺의 悉曇과 諸部の 異執과 四圍(4Veda), 五明

과 秘呪 儀軌를 모두 익히고 篇頌 筆語 書蹤에 이르기까지 두루 涉獵하고 大曆 11年 (776)에 誓願대로 五臺山에 들어가서 聖跡을 두루 순례하니 상서로운 感應이 많았다. 이에 峨嵋山에 가서 普賢菩薩을 親見하기 위하여 험하고 높은 곳에 모셔진 聖像을 두루 參禮한 다음에 五臺山으로 되돌아 와서 大華嚴寺에 거처하면서 오로지 方等讖法¹⁾을 행하였다. 그때에 寺主人 賢林이 『화엄경』을 講義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화엄경』과 그에 따른 여러 論書를 보다가 『화엄경』의 舊疏가 문장은 번거롭고 뜻이 너무 간략한 것을 개탄하고 오랜 생각 끝에 “文殊는 지혜를 주하고 普賢은 이치를 주한다. 二聖이 합하면 毘盧遮那가 되며 萬行을 兼通함이 곧 華嚴의 뜻이 된다. 내가 이미 普賢의 경계에 놀고 妙吉의 鄉原에 머물고 있으니, 毘盧를 해석하지 않으면 二聖을 저버리게 된다.”고 하면서 『화엄경』에 대한 새로운 疏를 쓰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였다.²⁾

여기에 대해서 『隆興編年通論』 권18은 “大曆 三年(768)에 代宗의 詔勅으로 內殿에 들어가 大辯正三藏과 함께 譯經에 종사하여 潤文大德이 되었다. 일이 끝나자 (皇帝와) 하직하고 五臺山 大華嚴寺에 들어가서 깊이 華嚴을 생각하다가 ‘五地聖人이 몸은 佛境에 깃들이고 마음은 眞如를 體得하고도 오히려 後得智에서 世俗心을 일으켜 世間解를 배운다’³⁾라는 經文에서 느낀 바가 있어 外전을 習學하였다.”⁴⁾ 고 기술하고

1) 方等讖法이란 北涼의 法衆이 永安 年中(402~413)에 번역한 『大方等陀羅尼經』 四卷(大正藏 21卷)에 근거한 行法이다. 類書로서는 『止觀』 卷二上的 四種三昧의 半行半坐三昧에 나오는 「方等三昧」와 宋咸平 六年(1003)에 “日本の 寂照가 가져갔다.”라고 遵式의 序文에 전하는 『方等三昧行法』一卷(大正藏 46卷)이 있다. 「方等讖法」의 脚注에 「略出五意 觀慧出餘文」이라고 한 것은 이들 類書를 가리킨다. 『止觀』에는 “召請法在國清百錄中”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灌頂이 『止觀』을 修治할 때에는 『百錄』의 안에 이 『方等讖法』이 收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方等懺悔에 대한 全文과 其他 詳細한 것은 池田魯參의 『國清百錄の研究』(昭和57年 2月 大藏出版) p.182~203 參照.

2) 大正藏 50, p.737상~중.

3) 이 말은 『화엄경』 권36의 十地品에 “佛子야. 이 보살(五地菩薩) 摩訶薩이 중생을 이익 되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世間の 技藝를 두루 익히지 않은 것이 없다. 이른바 文字, 算數, 圖書, 印璽와 地水火風의 種種의 모든 論書를 다 通達하고 또 藥處方을 잘해서 온갖 病을 治療하나니 癡狂과 乾癆와 鬼魅와 蠱毒을 다 除斷할 수 있으며, 文筆讚詠과 歌舞 妓樂과 戲笑談說을 모두 다 (때와 장소에 어울리게) 그 일을 잘하며, 國城村邑과 宮宅園苑과 泉流陂池와 草樹花藥의 分포 상황을 잘 알며, 金銀摩尼와 眞珠와 琉璃와 螺貝와 碧玉과 珊瑚 등이 있는 곳을 다 알고 사람들에게 보이며, 日月星宿와 새가 울고 땅이 震動하며 꿈의 吉凶과 身相의 休咎를 잘 관찰하여 錯謬가 없으며, 持戒와 入禪과 神通

있다.

그러나 『妙覺塔記』는 澄觀이 五臺山으로 가게 된 動機를 “住處品에 이르러서 ‘文殊菩薩이 事를 따라서 五頂을 觀照한다.’는 구절을 살피고는 드디어 萬里를 멀리 여기지 아니하고 목숨을 맡겨 聖境에 栖托하였다.”⁵⁾라고 밝혀 『화엄경』의 諸菩薩住處品의 經文에 의한 것이라고 五臺山 信仰과 관련 짓고 있다.

위의 글에서 ‘만리를 멀다 아니하고 목숨을 맡겨 聖境에 栖托하다.’는 표현은 다소 과장된 듯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華嚴經玄談會玄記』의 저자인 普瑞는 “大鈔에 이르기까지는 五千里이지만 反復하면 萬里이다. 당시에 逆寇가 常法을 紊亂하게 하고 兵戈가 蜂起하고 있었는데 忌憚함이 없이 遊學하였기 때문에 委命이라고 말한다.”라고 脚注를 붙이고 있다. 여기에서 普瑞가 말하는 ‘大鈔’라는 것은 澄觀의 『연의초』로서 新譯 『화엄경』 諸菩薩住處品을 해석하는 鈔文이다. 이것은 五臺山 信仰의 成立과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別稿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므로 여기서는 『화엄경소』의 저작과 관계가 있는 부분만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澄觀은 스스로 五臺山에 오르게 된 이유에 대해서 『華嚴經疏』 卷47에서 “내가 어려서 이 경전을 보다가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책을 덮고 長歎하였다. 드디어 만리를 멀다고 아니하고 목숨을 맡겨 聖境에 栖託하여 서로 권유하여 이에 十年이 되었다.”⁶⁾라고 기술하고, 이것을 설명하는 『演義鈔』 卷76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疏에서 ‘余幼尋’이라고 말한 아래는 두번째로 스스로 보고 들은 것을 기술한 것이니 먼저는 山에 이르게 된 源由를 敘述함이니 이 보살의 住處가 淸涼山이라는 文에 의한 것이다. 當時에 逆寇가 平常의 길서를 어지럽게 하고 兵戈가 蜂起하며 豺狼이 길을 막고 山川이 阻絶하였으나 꺼려함이 없이 노닌 연고로 委命이라고 하였으며 길은 비록 五千이지만 反覆하여 萬里이다.⁷⁾

과 四無量과 四無色 등과 나머지 一切 世間の 일을 다만 중생에게 損惱를 끼치지 않고 利益 되게 하기 위한 연고로 다 開示하여 漸漸 無上佛法에 安住하게 한다.”(大正藏 10. p.192중)라는 문장을 말한 것임.

- 4) 卍續 史傳部 20, p.605하. 또 『佛祖歷代通載』 卷14 『淸涼志』 卷7. 『佛祖綱目』 卷31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 5) 新纂大日本續藏經 第八卷, p.93중.
- 6) 原文은 “余幼尋茲典 每至斯文 皆掩卷長歎 遂不遠萬里 委命棲託聖境 相誘十載于茲”(大正藏 35, p.859하)라고 하고 『妙覺塔記』는 “遂不遠萬里 委命栖托聖境 相仍十稔 掛錫于大華嚴寺”라고 하였다.
- 7) 大正藏 36, p.601상.

이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인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唐代를 통하여 가장 큰 試鍊이라고 할 수 있는 安史의 亂(755~763)이 代宗의 廣德 元年(763)에 郭子儀⁸⁾, 李光弼⁹⁾ 등의 활동에 의하여 진정되었다고 하지만 『舊唐書』, 『新唐書』의 代宗, 德宗의 本紀 및 『資治通鑑』 등을 보면, 安祿山¹⁰⁾은 그의 아들인 安慶緒에게 죽고 安慶緒는 그의 部將인 史思明에게 죽었으며, 史思明은 그의 아들인 史朝義에게 죽고 그의 部下였던 范陽 尹李懷仙¹¹⁾이 史朝義의 목을 베어 항복함으로써 끝을 맺게 된다. 이에 朝廷은 이듬해인 廣德二年(764) 潤正月에 降將인 李懷仙을 檢校兵部尙書 兼侍中 武威郡王 幽州節度使를 삼고 李寶臣¹²⁾을 檢校禮部尙書 兼御史大夫 恒州刺史 清河郡王 充成德軍節度使를 삼고 薛嵩¹³⁾을 檢校刑部尙書 相州刺史 相衛等州節度使를 삼고 田承嗣¹⁴⁾를 檢校戶部尙書 魏州刺史 雁門郡王 魏博等州都防禦使를 삼음으로써 항복한 장수에게 옛 領土를 保全하여 주는 宥和政策을 썼다.

그러나 이들의 殘黨은 진정한 鈕우침이 없이 朝廷이 강할 때는 항복하고 弱할 때는 다시 叛亂을 일으키기를 계속하다가 建中 三年(782)에 이르러 朱滔¹⁵⁾는 冀王, 田悅¹⁶⁾은 魏王, 王武俊¹⁷⁾은 趙王, 李納¹⁸⁾은 齊王을 僭稱하면서 四道가 共同으로 淮西의 李希烈¹⁹⁾을 天下兵馬元帥로 推戴하여 唐에 對抗하려 하였다. 馬燧²⁰⁾ 등의 충렬의 장수들이 死力을 다하였으나 敵을 진압하지 못하였다. 建中 四年(783)에는 李希烈이 襄城을 공격하자 德宗은 涇原軍에게 兵難의 鎮壓을 命하였다.

그러나 命을 받은 涇原軍이 長安을 通過할 때 충분한 恩賞도 내리지 못하고 軍糧도 충분히 提供하지 못했다. 여기에 격분한 涇原軍은 宮殿을 빼앗고 벼슬에서 쫓겨나 있던 太尉朱泚²¹⁾를 받들어 天子로 모셨다. 一時에 長安은 叛軍에게 陷落당하고

- 8) 郭子儀의 전기는 『구당서』 120, 『신당서』 137에 있음.
- 9) 李光弼의 전기는 『구당서』 110, 『신당서』 136에 있음.
- 10) 安祿山父자와 史思明父자의 傳記는 『구당서』 권200上과 『신당서』 권225上(逆臣上)에 실려 있다.
- 11) 李懷仙의 전기는 『구당서』 143, 『신당서』 212에 실려 있다.
- 12) 李寶臣의 전기는 『구당서』 142, 『신당서』 211에 있음.
- 13) 薛嵩의 전기는 『구당서』 124, 『신당서』 111에 있음.
- 14) 田承嗣의 전기는 『구당서』 141, 『신당서』 210에 있음.
- 15) 朱滔의 전기는 『교당서』 143, 『신당서』 212에 있음.
- 16) 田悅의 전기는 『구당서』 141, 『신당서』 210에 있음.
- 17) 王武俊의 전기는 『구당서』 142, 『신당서』 211에 있음.
- 18) 李納의 전기는 『구당서』 124, 『신당서』 213에 있음.
- 19) 李希烈의 전기는 『구당서』 145, 『신당서』 225中에 있음.
- 20) 馬燧의 전기는 『구당서』 134, 『신당서』 155 있음.

德宗은 몇 명의 王族과 宦官들의 도움을 받아 鳳翔으로 避難하려 하였으나 鳳翔軍도 叛亂을 일으켜 節度使를 죽이자 하는 수 없이 奉天의 좁은 곳으로 간신히 難을 피하였다. 奉天이 叛軍에게 陷落되기 직전에 李懷光²²⁾의 도움으로 간신히 적의 포위를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李懷光은 거의 협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당시에 德宗의 두터운 信任을 받고 있는 盧杞²³⁾를 辭職 시킨 뒤에, 스스로 不安을 느끼고 個人的인 욕망도 발동하여 도리어 難을 일으켜 나라는 大混亂에 빠졌다. 最終적으로는 李晟²⁴⁾, 馬燧, 渾瑊²⁵⁾ 등의 活躍에 의하여 興元 元年(784)에 長安을 수복하고 貞元 元年(785)에 李懷光이 自殺하였다. 貞元 二年(786)에 李希烈이 그의 부하 장수에게 毒殺담함으로써 戰亂은 평정되었으나 河北三鎮은 여전히 半 獨立狀態를 인정받았다. 代州 雁門郡에 있는 五臺山은 當時에 雁門郡王 田承嗣의 뒤를 이어서 魏王을 僭稱한 田悅의 영향권에 속하는 地方이었다. 이렇게 어려운 戰亂의 시기에 五臺山을 찾아 수도에 專念하였으므로 “委命栖託聖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華嚴經疏의 著作

澄觀의 대표적인 저술인 『화엄경소』의 저작연대에 대해서 『隆興編年通論』 卷18. 『清涼志』 卷7. 『佛祖歷代通載』 卷14는 建中 四年(783)에서 시작하여 4년을 지나서 완성하였다고 말하고, 『妙覺塔記』와 『法界宗五祖略記』는 興元 元年(784)에서 貞元 三年(787) 사이에 지었다고 말하고 있다. 『宋高僧傳』 『六學僧傳』 『神僧傳』의 澄觀傳은 더욱 상세하게 興元元年(784) 正月에 시작하여, 貞元 三年(787) 12월에 20권의 疏를 完成하고 千僧에게 공양을 올려 경축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의심되는 것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澄觀의 『화엄경소』 47에서 “서로 勸誘하여 지금까지 十年(相誘十載于茲)”²⁶⁾이라는 기록과, 이것을 해석하는 『演義鈔』 76에서 “一十五년에 疏를 지으니 여기에 이르기까지 바로 十年에 해당한다. (一十五年作疏 至斯正當十載)”

21) 舟車의 전기는 『구당서』 200下, 『신당서』 225에 있음.

22) 李懷光의 전기는 『구당서』 121, 『신당서』 224에 있음.

23) 盧杞의 전기는 『구당서』 135, 『신당서』 224에 있음.

24) 李晟의 전기는 『구당서』 133, 『신당서』 154 있음.

25) 渾瑊의 전기는 『구당서』 134, 『신당서』 155에 있음.

26) 이것은 「묘각탑기」의 “拄杖子を 大華嚴寺에 내려놓은 지 十年이나 되었다. 山門의 스님 네가 (華嚴道理를) 敷揚하기를 청하였다.”(新纂大日本續藏經8. p.93중)라는 기록과도 일치한다.

라는 구절이다. 이것은 澄觀이 五臺山에 오른 年代와 疏를 지은 시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자세히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澄觀이 五臺山에 오른 때를 『宋高僧傳』의 澄觀전에서 말한 大曆 11年(776)으로 가정한다면, 貞元 元年(785)이 바로 十年째에 해당하고 十五年은 貞元 六年(790)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에서 기술한대로 『宋高僧傳』의 澄觀전은 疏를 지은 시기를 “興元 元年(784) 正月에 시작해서 貞元 三年(797)에 마치다.(起興元元年正月 貞元三年十二月畢功).”²⁷⁾라고 하고, 『妙覺塔記』도 “興元元年甲子歲(784)에 疏를 지어 貞元 丁卯歲 (787)에 마치다.(興元元年甲子歲造疏 貞元丁卯歲功就).”라고 말하여 『宋高僧傳』과 일치한다. 다만 『隆興編年通論』 18에서는,

建中 四年(783)에 이르러 鉢을 내려 장차 疏를 지으려 하여 먼저 瑞應을 구하였다. 하루 저녁에 金容이 陽山의 꼭대기에 當하여 光相이 顯顯함을 보고 손으로 받들어 面門으로 삼켜버렸다. 깨어나서 기뻐하며 光明遍照의 徵驗을 얻었다고 생각하였다. 이로부터 鉢을 내리자 생각에 멈춤이 없었다. 이에 信解行證으로써 華嚴을 나누어 네 가지 큰 과목을 삼으니 理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澄觀이 ‘대양 舊疏가 經旨를 다하지 못함을 慨歎하고 오직 賢首 國師가 자못 淵源을 涉하였다.’고 여기고 드디어 그것을 宗承하였다. 疏를 지음에 무릇 四年이 지나서 文이 이루어졌다. (建中四年 將下筆著疏 先求瑞應 一夕夢 金容 當陽山時 光相顯顯 因以手 捧咽面門 既覺而喜 以謂獲光明遍照之徵 自是落筆無停思 乃以信解行證 分華嚴爲四大科 理無不包 觀每慨舊疏 未盡經旨 唯賢首國師 頗涉淵源 遂宗乘之 製疏 凡歷四年而文成)²⁸⁾

라고 밝혀 建中 四年(783)에 疏를 짓기 시작하여 四年 後(貞元 三年인 787)에 疏가 성립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만약에 ‘五臺山에 온 지 十年 만에 疏를 짓기 시작하였다.’는 기록이 사실이고 建中 四年(783)에 ‘疏를 짓기 시작하였다.’는 기록도 사실이라면, 大曆 八年(773)이나 大曆 九年(774) 즈음에 五臺山에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宋高僧傳』이 말한 “興元元年(784) 正月에 시작해서 貞元 三年(787)에 마치다.(起興元元年正月 貞元三年十二月畢功).”라고 말한 것을 믿는다면 大曆 九年(774)이나 大曆 十年(775)까지는 五臺山에 도착하여야 앞뒤의 말이 이치에 맞다. 그러나 이미 논술한 바와 같이 『宋高僧傳』의 澄觀전은 大曆 七年(772)에는 剡溪에 가서 慧量에게 三論을 배우고 同十年(775)에는 蘇州에 나아가 湛然에게 天台敎學을 배운 것으로 되

27) 大正藏 50, p.737중.

28) 卍續選輯 史傳部 20, p.605하.

어 있다.

이상과 같은 矛盾 되는 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拙見으로는 大曆 七年에 慧量에게 三論을 배우고, 十年(775)에는 蘇州에 나아가 湛然에게 天台敎學을 배웠다는 것을 의심할 必要는 없으나, 이 무렵부터 五臺山을 출입하면서 『華嚴經疏』의 저작을 준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⁹⁾ 다시 말하면 『宋高僧傳』이 말한 “興元 元年(784) 正月에 시작해서 貞元 三年(797)에 마치다(起興元元年正月 貞元三年十二月畢功.”라고 말한 것을 製疏道場³⁰⁾에서 『화엄경소』의 저작에 專念한 시기로 보면 좋을 것이고, 『演義鈔』에서 “一十五年作疏”라는 말은 처음으로 『화엄경소』 짓기를 발원하고 조용히 준비한 시기까지를 합친 숫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화엄경소』에서 말한 “相誘十載于茲”라는 표현이나, 『演義鈔』에서 “至斯正當十載”라고 말한 것은, 五臺山에 정착하여 『諸菩薩住處品』에 대한 疏를 집필할 당시(즉 貞元 二年인 786년경)까지의 十年

29) 위에서 인용한 『화엄경소』에서 “내가 어려서 이 경전을 보다가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책을 덮고 長歎하였다. 드디어 만리를 멀다고 아니하고 목숨을 맡겨 聖境에 栖託하여 서로 권유하여 이에 十年이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이것을 설명하는 『演義鈔』 卷76은 疏에서 ‘余幼尋’이라고 말한 아래는 두번째로 스스로 보고 들은 것을 기술한 것이니, 먼저는 山에 이르게 된 源由를 敘述함이니 이 보살의 住處가 淸涼山이라는 文에 의한 것이다. 當時에 逆寇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兵戈가 蜂起하며 豺狼이 길을 막고 山川이 阻絶하였으나 矧려함이 없이 노닌 연고로 委命이라고 하였으며, 길은 비록 五千이지만 反覆하여 萬里이다.”라고 한 말 가운데 ‘만리를 멀다고 아니하고 목숨을 맡겨 聖境에 栖託하여 서로 권유하여 이에 十年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은 뜻을 같이하는 도반들이 서로 勸誘하여 五臺山을 出入하였을 것으로 풀이하여도 좋을 것 같다. 그것은 징관 스스로 ‘길은 비록 五千이지만 反復하여 萬里’라는 말에서도 그가 大曆 11년에 정식으로 五臺山에 籠山하기 이전부터 출입이 잦았다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30) 『廣淸涼傳』 卷下(大正藏 51, p.1120상~하)의 制疏道場 설립에 대한 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大曆 十一年에 五臺山의 西般若院 밑에 定着을 前後하여 五臺에 遊覽하기를 四十餘 會나 하였고, 뒷날 大華嚴寺에 定着하여 오로지 大乘方等의 가르침[敎]을 讀誦하되 특히 『華嚴經』을 翫習하여 경전을 떠나는 일이 없었다. 당시 화엄사의 寺主인 賢林 등의 요청에 응하여 『華嚴經』, 『법화경』 등을 前後 五年이나 강하였다. 法師께서는 『화엄경』 舊疏의 방대한 量에 비하여 義旨가 드러나지 않음을 개탄하고 『화엄경소』의 저작을 발원하였다. 般若院으로 옮겨 와서 대중에게 말하길 “내가 성지에 온 것은 광겁에 희망하여 만난 것이다. 交遊를 물리치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疏를 짓고 싶으니 나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주겠습니까?”라고 말하자 寺主賢林과 대중이 찬성하여 이에 그을 모아 재빨리 집을 짓고 溫州 無着이 王羲之의 필법으로 상량을 썼다. 훌륭한 집이 완성되자 거기에 制疏道場을 세웠다. 興元 元年 四月 八日이었다.

을 말한 것으로 풀이하면 좋을 것이다.³¹⁾

다만 大曆 七年에 慧量에게 三論에 대해서 묻고 同十年(775) 湛然에게 天台學이나 『法華經』에 대해서 배웠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배우는 입장을 떠나서 의심되는 것을 묻고 琢磨하는 입장이었고, 때로는 의견을 달리하여 심한 논쟁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澄觀으로서는 『화엄경소』를 짓기를 결심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을 것이며, 湛然은 澄觀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金鑰論』과 『止觀義例』를 짓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추리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大曆 七年(772)쯤부터 三論을 복습하고 天台, 法華 등을 배우는 한편, 五臺山을 출입하면서 『화엄경소』 짓기를 발원하였으나 마음뿐이고 좀처럼 진전을 볼 수 없어 五臺山에 定着하였다. 그러나, 거기서도 남을 위하여 강의하고 사람 만나고 이력저력 세월만 흘러갈 뿐 아무런 진전이 없으므로 建中 四年(783)에 이르러 혼자서 저작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도량을 지어서 그것이 완성되자 興元 元年부터 疏를 짓기 시작하여 貞元 三年(787) 十二月에 疏가 完成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³²⁾

다음 『화엄경소』를 짓게 된 동기에 대해서 『演義鈔』序는 “晉譯의 幽秘(舊譯『華嚴經』)는 賢首가 자못 그 門을 얻었으나 唐譯의 靈編(新譯『華嚴經』)은 後代의 학자(後哲)가 그 요묘함을 엿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澄觀이 학문의 비천함(膚受)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문득 玄微(한 도리)를 밝히었다.”³³⁾라고 서술하고 있다. 晉譯 『화엄경』은 현수의 뛰어난 해석이 있었지만 唐譯 『華嚴經』에 대해서는 그럴 듯한 해석이 없으므로 자기가 『華嚴經疏』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에서 인용한 『宋高僧傳』 등의 傳記類가 서술한 ‘五臺山에 들어가 『華嚴經』과 그에 관계되는 여러 論을 보다

31) 이 問題에 대해서 鎌田茂雄 위의 책(p.165)에서 ‘正當十載’라는 말은 五臺山 時代를 말하고, 『妙覺塔記』가 말한 것은 五臺山 入山 後의 著作 時代를 말한다. 『演義鈔』卷七十六의 記事는 『華嚴經疏』의 執筆의 構想이 싹트고, 著作을 위한 資料 蒐集 時代까지를 포함한 것으로 추리하고 있다.

32) 『廣清涼傳』卷下 澄觀傳(大正藏 51, p.1120상~중)은 “制疏道場을 세운 때가 興元 元年(784) 四月 八日이고, 疏를 完成한 때를 正元 元年 丁卯歲 11月 5日(疏主於上 起立制疏道場 卽唐興元元年 四月八日也 --중략-- 自 興元元年 迄正元元年丁卯歲 十一月五日絶筆)이라고 하지만, 貞元 元年이 乙丑年이고 貞元 三年이 丁卯年이므로 ‘元年’은 ‘三年’의 誤記임이 확실하다. 기타 『廣清涼傳』의 기록은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많으나 『宋高僧傳』卷五의 正觀傳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興元 元年 正月에 시작하여 貞元 三年 十二月에 완성하였다고 서술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宋高僧傳』의 說을 따르기로 하였다. 다만 制疏道場은 그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33) 大正藏 36, p.1상.

가 『華嚴經疏』의 저작을 자기의 사명으로 삼았다는 기록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저작에 임하는 그의 마음가짐은 歸命偈에서 三寶에 歸依한 다음에,

내 이제 한낱의 털끝 같은 지혜로써 가없는 法界空을 헤아리고저 하오니 願하옵건대 三寶의 同體慈를 이어받아 구절마다 모든 부처님의 뜻에 冥符하게 하옵소서.³⁴⁾

라고 빌고 있는 것처럼 매우 조심스러웠던 것 같다. 이것은 자신의 저작이 붓다의 本意에 부합하기를 비는 일종의 기도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그는 文殊의 住處인 五臺山과 普賢의 주처인 峨帽山을 두루 순례하여 상서를 感得하고, 五臺山 대화엄사 般若院에서 方等講法을 행하여 吉夢을 얻고, 制疏道場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疏를 지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華嚴經疏』가 붓다의 本意에 부합하는 훌륭한 저술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적인 표현인 듯하지만, 澄觀의 말에 의하면 北魏 靈辨의 『華嚴論』 百卷과 北齊 劉謙之의 『華嚴論』 六百卷도 禮懺과 기도의 產物이라고 한다. 즉 『華嚴經疏』 卷三에,

三. 北齊의 劉謙之는 청량산에서 感通하여 論 六百卷을 지어서 一經을 갖추어 번역하고, 四. 後魏의 僧侶인 靈辨은 五臺山에서 이 경을 頂戴하고 일년 간 수도하여 드디어 玄旨를 깨닫고 論 一百卷을 지어 또 세상에 전한다.³⁵⁾

라고 서술함으로써 劉謙之의 『華嚴論』 六百卷과 靈辨의 『華嚴論』 百卷이 五臺山에서 感通을 얻고, 頂戴하고 行道하여 이룩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해석하는 『演義鈔』 卷十五는,

“三. 北齊의 劉謙之” 등이라고 한 것은 靈辨과 함께 『纂靈記』 (의 기록과) 같다. 아래에 다시 나올 것이다. 다만 이제 ‘行道一載’라고 말한 것은 곧 『華嚴傳』의 文이다. 만약 論의 序에 준한다면, 年數를 말하지 아니하고 또 다만 ‘懸釜山 崇巖寺에서 화엄경을 頂戴하고 勇猛스럽게 行道하여, 발이 터져서 피가 흘러도 무릎으로 걸으며 殷勤하고 精微하여 感悟하였다.’라고 말하고 ‘清涼’은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다분히 이는 隨方의 사람이 그 처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太原의 當處를 취해서 밝혔다.³⁶⁾

34) 華嚴經疏序의 다음에 나오는 歸命偈(大正藏 35, p.503하)

35) 大正藏 35, p.523상.

三 北齊劉謙之 於清涼山 感通造論六百卷 備釋一經 四 後魏僧靈辨 於五臺山 頂戴此經 行道一載 遂悟玄旨 造論 一百卷 亦傳於世

라고 주목할만한 말을 하고 있다. 즉 古代社會에서는 神聖한 저술은 신성한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假託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실제로 神聖한 聖地인 五臺山에서 『華嚴經疏』를 짓게 되었으니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華嚴經疏』의 서문에서,

돌아보건대 正法의 시대에도 오히려 淸輝를 숨기더니 다행하도다. 像季의 시대에 이 玄化(華嚴經)를 만났구나! 하물며 聖主를 만나 靈山에 있으면서 幽宗을 마음껏 생각할 수 있으니 어찌 경축하여 뛰지 않겠느냐?³⁷⁾

라고 하여 자신이 『華嚴經』의 깊은 도리를 만나고 德宗皇帝의 聖代를 만나서 五臺山의 聖地에서 그윽한 宗趣를 마음껏 연구하게 된 것을 自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華嚴經疏』의 분양에 대해서 『宋高僧傳』 卷五是 “二十軸을 이루다.” (大正藏 50, p.737中)라고 기술하고, 『佛祖統紀』 卷29는 “新疏二十軸을 짓다.”³⁸⁾라고 기술하였으며, 『法界宗五祖略記』는 “疏二十卷을 이루었다.”³⁹⁾라고 기술하여, 대부분의 傳記類와 大覺 國師의 『義天錄』(大正藏 55, p.1166上), 圓仁의 『入唐求法聖教目錄』(大正藏 55, p.1083中 및 明版嘉興大藏經(影印本四冊) 收錄本 등의 目錄類가 二十卷으로 기술하였다. 日本의 金澤文庫에 保存되고 있는 鎌倉時代의 古寫本(제50函)에도 二十卷으로 수록된 것으로 보아 처음 『화엄경소』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二十卷이었음이 분명한 듯하다.⁴⁰⁾

그러나 『義天錄』의 각주에 “或開爲四十卷”이라 기술한 것과 興福寺沙門永超集 『東域傳燈目錄』의 華嚴部는 「華嚴經會釋論 十四(四十의 誤記인 듯함)卷」을 그 脚注에 “新經 李通玄”이라고 注記한 다음에 「同經疏三十卷」이라고 표기하고 그 각주에 「演

36) 大正藏 36, p.112하.

三北齊劉謙之等者 及與靈辨 并如纂靈記 下當重出 但今云行道一載 卽是傳文 若準論序 不言年數 又但云 於懸釜山崇巖寺 頂戴華嚴經 勇猛行道 足破血流 膝步懇懃 精微感悟 不言淸涼 多是隨方之人 欲美其處 故取太原當處明之

37) 大正藏 35, p.503중.

願惟正法之代 尙匿淸輝 幸哉 像季之時 遇斯玄化 況逢聖主 得在靈山 渴思幽宗 豈無慶躍

38) 大正藏 49, p.293중.

39) 新文豐出版公司印行 『正續選輯 史傳部 四』, p.550하.

40) 高橋秀榮「陸長源が撰述した『大方廣佛華嚴經疏序』について」는 이 古寫本이 澄觀當時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일 거라고 추리하고 있다.

義新經清涼山大華嚴寺般若院澄觀師撰 分本末成六十軸---」⁴¹⁾ 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義天과 永超의 시대에는 複數의 製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明版 嘉興大藏經(影印本11~12冊) 收錄本은 經과 疏와 鈔를 합본한 것인데, 그 末尾에 天啓 五年(1625) 十月 三日에 지은 葉祺胤의 「大方廣佛華嚴經疏鈔釐合凡例」는 南藏은 四十卷本, 北藏은 六十卷本으로 수록되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참고로 지금 大正藏 第三十五卷 및 明版嘉興大藏經(影印本四冊) 收錄本 등은 60卷本이다.⁴²⁾

II. 『演義鈔』의 著作에 대해서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澄觀은 大曆年 間으로부터 五臺山을 출입하다가 大曆 11年부터 五臺山에 籠山하여 수행에 전념하면서 『화엄경소』를 지을 준비를 마친다. 建中四年(783)에 制疏道場을 세우고 興元 元年부터 疏를 짓기 시작하여, 貞元 三年(787) 十二月에 疏가 完成 되었다고 보면 좋을 것이다. 이 疏가 성립된 직후인 (貞元)四年(788) 春 正月에 (당시의) 寺主人 賢林이 新疏를 강의하여 주기를 청하고, 七年(791)에는 河東節度使 李自良이 崇福寺에서 강의하여 주시길 청하니 이 소문이 궁중에까지 알려져 덕종의 四十卷本 『華嚴經』의 번역장에 초청 받아 역경사업에 종사하는 등 매우 바쁜 포교활동을 하게 된다. 이 기간중에도 그는 끊임없이 저술활동을 한 것이 분명하다. 즉 澄觀의 저술이 생겨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대부분 당시의 皇帝와 皇太子 혹은 朝臣들의 간곡한 要請에 의하여 설법하여진 것이 많다. 그것에 비하여 『華嚴經』을 강의하는 講師 스님들의 요청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 『演義鈔』라고 略稱되는 『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이다. 즉 이 『演義鈔』를 쓰게 된 동기에 대하여 澄觀 자신이 서문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澄觀이 膚受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문득 玄微를 밝히니, 우연히 九州에 넘치고 멀리 四海에 드날리게 되었다. 百名의 講者가 모두 나를 찾아 말하길 ‘大敎의 旨趣가 깊고 疏文이 致遠하니 친히 (清涼澄觀의) 가르침을 받으면 宗趣에 近接한 듯(髣髴)하지만 법(範)을 千古에 드리우고자 한다면 높은 깨달음을 미혹할까 염려되오니 바라옵건대 다시

41) 大正藏 55, p.1146중.

42) 『華嚴經疏』의 여러 異本 및 그 流轉에 대해서는 拙論 ‘清涼『華嚴經疏鈔』의 流傳’(海印僧伽大學 『修多羅』 일곱권제)에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조개를 드리우사 光輝를 보게 하옵소서.’ 라고 간곡하게 요청함으로써 이 雅懷를 수순하여 다시 條理하니 이름이 隨疏演義이다.⁴³⁾

이처럼 澄觀이 『華嚴經疏』를 지어 『華嚴經』의 玄微한 도리를 밝히니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까지 널리 퍼졌다.⁴⁴⁾이렇게 되자 각처에서 澄觀의 『華嚴經疏』를 갖고 강의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 百名이나 찾아와서 말하길, “『華嚴經』의 뜻이 깊고 『華嚴經疏』의 이치도 遼遠해서 저희들이 직접 큰스님의 설법을 들으면 그럴 듯하게 알아듣는 것 같지만, 먼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는 큰 깨침의 도리를 미혹할까 두렵습니다. 바라옵건대 이것을 다시 좀더 자세하게 해석하여 중생들이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다. 이분들의 거룩한 뜻을 이어서 다시 걸가지를 다스리는 疏文을 따라 가면서 해석하는 작업을 하였으니 이것을 이름하여 『隨疏演義鈔』라고 한다는 것이다.

즉 『華嚴經疏』만 보아서는 깊은 뜻을 알기 어려우므로 後代의 學者를 위해서 알기 쉬운 해석서를 요구하는 弟子들의 요청에 依한 것이다. 그러나 『疏』의 문장이 簡單明瞭하게 자기의 사상을 기술한 것에 비유하여 『演義鈔』는 하나의 敎理를 설명하는데 각종 학설을 比較檢討하기도 하고 『華嚴經疏』가 인용한 語源을 설명하기도 하는 등 百科辭典 같은 역할을 하여 매우 친절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散漫한 곳이 많아 “바다에 들어가 모래를 헤아리는 격”이라는 酷評도 있다.⁴⁵⁾ 어쨌든 本書는 澄觀의 博學을 보여주는 방대한 양이며, 여기에 인용되는 書名 人名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 各種의 불교학은 물론 인도와 중국의 여러 思想家의 학설, 古事, 禪語錄까지 널리 인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演義鈔』의 卷數에 대해서 『妙覺塔記』는 ‘四十卷’이라 하고 『義天錄』은 ‘四十卷’이라고 표기한 다음에 그 각주에 ‘혹은 六十卷本도 있고 徑山寫本은 八十卷’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東域傳燈錄』에 ‘三十卷’이라고 표기한 것을 보면 『연의

43) 『演義鈔』의 序文(大正藏 36. 1. 上) ;

澄觀 不揆庸受 輒闡玄微 偶溢九州 遐飛四海 講者盈百 咸仰余曰 大教趣深 疏文致遠 親承旨訓 髣髴近宗 垂範千古 慮惑高悟 希垂再剖 得觀光輝 順斯雅懷 再此條理 名爲隨疏演義

44) 앞의 拙論을 참조.

45) 葛立方의 『韻語陽秋』 卷十二는 唐의 中葉에 네 사람의 정관이 있었다고 하면서 洛中の 澄觀, 會稽의 澄觀을 소개한 다음에 『傳燈錄』에 실린 鎮國大師澄觀을 소개하면서, 『華嚴經疏鈔』를 지은 澄觀을 ‘算沙窮海者’라고 평하고 있다. 상세하게는 拙論 ‘韓愈의 『送僧澄觀』について’(1990年, 『大正大學大學院研究論集』 第 14 號) 參照

초』도 여러 형태의 調卷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影印本 明版嘉興大藏經 第五冊과 大正藏 第三十六卷에 수록된 것은 모두 90권본이다. 참고로 지금 大日本續藏經 第八卷부터 第十一卷(新纂本은 第五卷부터 第七卷)에 수록된 것은 嘉靖年間(1522~1566)에 昭慶寺에서 여러 스님이 舍心하여 만든 經과 疏와 鈔를 합하여 만든 것이고, 『明版嘉興大藏經』 第十一과 十二冊에 수록된 것은 葉祺胤이 만든 合本이다. 이 葉氏本이 1681年 荏子島에 도착하여 栢庵性聰에 의하여 간행되고, 이것이 오늘까지 불교전문강원의 교재로 임하고 있다.⁴⁶⁾

III. 著述의 當爲性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는 著述에 들어가기 전에 歸命偈를 지어 三寶에 歸依하여 학문에 宗이 있음을 내보이고, 자신의 털끝같이 보잘 것 없는 지혜로써 짓고자 하는 저술이 붓다의 뜻에 계합하기를 발원한 다음에 이어서 그는 『演義鈔』卷二에서 자신이 新譯 『華嚴經』에 대한 解釋書를 짓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자신이 著述 活動을 하는 것은,

大法를 弘通시켜서 衆生을 이롭고 즐겁게 하기 위함이니 곧 붓다의 慈悲와 智慧의 大意이다.

『화엄경』은 모든 부처님이 證得한 根本法輪으로 모든 가르침의 표준이 된다. 중국이나 印度에서 우러러 받들지 아니함이 없지만 則天武后 때에 번역한 新譯은 賢首가 해석하려 하였지만 大願을 마치지 못하고 第十九經에 이르러 열반에 드셨다. 제자인 慧苑이 賢首의 작업을 잇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賢首의 뜻을 깎아내고 筆格 文詞도 스승을 繼承하지 아니하여 드디어 後學으로 하여금 大經을 가벼이 여기게 만들었으며, 毘盧遮那의 心源과 普賢의 行海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大經을 弘揚하기 위하여 慨然의 歎息을 발하니 만약 허물이 있는데 말하지 아니하면 是非를 混同해서 전하는 사람의 충명을 막을 뿐만 아니라 學人의 길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不得已해서 著作을 하게 되었다

고 하면서 간략하게 열 가지 이유를 열거하고 있으나 대개가 慧苑의 『續華嚴經略疏

46) 『화엄경소초』의 합본에 대해서는 앞의 줄론 참조

刊定記』와 자신의 저술과 다른 점을 열거하고 있다.

1. 聖旨가 深遠하여 각각 見解를 펴기 때문이다. 이 말은 澄觀 이전에도 많은 解説서가 있지만 佛法이 깊고 깊어 사람에게 따라서 見解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解説서가 있더라도 남과 다른 견해를 나름대로 밝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 心觀을 顯示하여 參禪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經이 비록 三學을 다 말하지만 바르게는 定을 말하니 모두 如來의 定心에서 나온 것이다. 하물며 『華嚴經』은 覺場을 떠나지 아니하고 부처가 증득한 것을 설하여 海印三昧가 친히 發揮한 바이며, 모든 큰 보살이 定心으로 받은 것이다. 昔人(慧苑)이 善友를 참배하지 못하고 다만 文字 찾는 것만 崇尚하며, 宗通을 貴하게 여기지 못하고 오직 言說만 專攻하여 능히 聖敎로써 明鏡을 삼아 自心을 비추지 못하고, 自心으로써 智燈을 삼아 經의 幽旨를 비추지 못하고, 玄言理說을 아울러 雷同이라 말하고 몸을 비우고 宗을 求하는 것을 臆斷으로 여겨 萬行이 自心을 了達케 함임을 알지 못하고, 一生토록 바쁘게 남의 보배만 헤아리다가 나이가 들어서 마야흐로 敎를 廢하고 禪을 구하려 하니 어찌 佛心만 억압할 뿐이겠는가? 실로 後學을 가르침이로다. 지금은 모두 이와 반대이므로 이 疏를 지어서 以心傳心の 旨趣로서 諸佛所證의 門을 開示하고 南北二宗의 禪門을 會通하며, 台衡三觀의 玄趣를 모아서, 敎는 亡言의 旨에 합하고 마음은 諸佛의 마음과 같게 하여 敎理의 法規를 어김이 없이 가만히 忘心の 地境을 밝도록 하였다.⁴⁷⁾
3. 옛날의 大義를 붙잡고 사람을 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말은 晉經은 賢首가 제대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가 강의하면 오색 구름이 하늘을 덮고 大地는 육중으로 진동하였다. 慧苑이 그의 법을 이었다고 하지만 비록 先生의 門에 들었으나 亡羊의 길을 알지 못하고 善友의 집을 지나치며 옷 속의 구슬을 알지 못하여 大義를 여러 번 그르쳤다. 현수의 五敎를 파하고 四敎를 세워서 邪宗과 섞어서 權과 實을 나누지 못하니 頓과 漸을 어찌 가리겠는가?⁴⁸⁾ 十玄의 妙旨를 분석

47) 이 단은 眞觀이 敎禪一致의 입장에 있었음을 알게 하며 天台의 觀心釋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板本幸男 『華嚴敎學の研究』 p.65. 參照.

48) 이것은 慧苑이 法藏의 五敎 (1. 小乘敎 2. 大乘始敎 3. 終敎 4. 頓敎 5. 圓敎)를 파하고 四敎 (1. 迷眞異敎 2. 眞一分半敎 3. 眞一分滿敎 4. 眞具分滿敎)를 세웠는데 이 가운데

하여 德相과 業用的 二重 심현을 만들어 繁多하게만 하였을 뿐 별다른 도리가 없다. 德相門에 相入과 相卽을 없애니 用에 즉한 體(卽用之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德相이 染門에 통하지 못하니 交徹의 뜻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 이러한 類가 실로 수없이 많다. 이는 옛(賢首)을 重히 여기고 지금(慧苑)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밝힐 뿐이다. (자신의) 新疏가 繁多하게 『判定記』의 文과 같은 것이 있는 것은 모두 옛(賢首의) 뜻으로 이제 함께 사용하였을 뿐이다.

4. 들뜬 말을 잘라 내어 바로 至理를 논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判定記』가 지나치게 科文을 잘게 나누고 經句를 重疊하며 범어와 會通하고 次第로 經文을 헤아리는 것이 경의 깊은 이치를 살피는데 별다른 도움이 못 되므로 모두 제거시켰다는 것이다. 澄觀의 해석은 經文에 十句가 많으므로 過半 이상은 어려운 것은 상세하게 쉬운 것은 간략하게 풀이하였으며 5, 6句 以下는 어려운 것은 要點만 해석하고 쉬운 것은 해석하지 않았다. 문장과 뜻이 다 쉬운 것은 크게 과목만 매기고, 문장은 쉬우나 뜻이 어려운 것은 總相으로 收束하고, 문장은 어려우나 뜻이 쉬운 것은 자세하게 글만 해석하고, 문장과 뜻이 모두 어려운 것은 먼저 大義를 제출한 다음에 해석하여 질박하면서도 촌스럽지 않고 간단하면서도 꼭진하게 하였다.
5. 自宗과 他宗을 좋게 하여 망령되게 배척하지 않았다. 이 말은 慧苑이 인용한 經論과 남의 학설을 비판할 때는 性相을 묻고 始末을 窮究함이 없이 쉽게 인용하고 쉽게 과하여, 權을 인용하여 실을 해석하고 通過 局을 분별치 아니하여 後學을 그르쳤다. 혹은 옛적의 바른 것을 그르다고 하고 혹은 權으로서 實을 삼았다. 지금은 반대이다. 만약 남의 학설을 破하거나 인용할 때는 먼저 저쪽의 뜻을 보여서 性相으로 하여금 이지러짐이 없게 그 意態를 다한 뒤에, 이쪽의 義理를 펴서 대결을 분명하게 해서 학자로 하여금 자취에 막히고 宗을 迷하지 않게 하며, 古義를 그르침이 없게 하며 수고롭게 해당 서적을 열람하는 일도 없게 하였다.
6. 옛날과 이제를 辨析하니 新舊의 뜻이 다른 연고이다. 이 말은 『探玄記』는 『晉經』

1. 迷眞異執에서 인도와 中國의 『老子』 『莊子』 『周易』의 사상을 취급하고 있는 것을 澄觀은 '邪宗을 섞다.'라고 심하게 공격한 것이다. 그러나 정관은 『玄談』의 宗趣通局에서 자신도 慧苑이 취급한 것과 똑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拙論「澄觀의 儒道觀과 그 批判」(鏡海法印 申正午博士華甲紀念『佛教思想論叢』 p.173 ~ p.178) 參照.

을 해석한 것이므로 大旨는 비록 같으나 말은 다른 것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慧苑이 十行品 이전은 賢首의 新修略疏(즉 『判定記』의 母體가 됨)를 의지하고, 回向品 이하는 『探玄記』를 竝用하고, 十地品 이하는 오직 옛것을 기록하였다. 二經이 조금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뒤섞어 놓은 것이 많다.

7. 法相을 明示하여 經의 包含을 나타내었다. 이 말은 이 經의 이름과 뜻이 함께 넓어서 혹 이름만 있고 뜻이 없기도 하고 혹은 뜻만 있고 이름이 없기도 한다. 慧苑은 하나의 이름을 보면 널리 여러 가지의 論을 인용하여 이름을 따라서 뜻을 이해하니 뜻이 無窮하다. 비록 모두가 法門이긴 하지만 깊고 깊은 觀行이 名相에 가리었다. 이제 다 간략하게 陳述하였을 뿐이다. 慧苑은 만약 뜻만 있고 이름이 없으면 까닭을 알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모든 經典을 인용하여 이름을 붙이고 經의 法相이 衆論에서 흰히 드러남을 밝혔다.
8. 널리 玄言을 연설하여 心要를 깨닫게 하는 까닭이다. 이 말은 經에는 玄言妙旨가 많이 있지만 慧苑은 널리 밝히지 아니하고 혹 別章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고 혹은 간략하게 陳述할 뿐이었으나 지금은 널리 體勢를 갖추어 밝혔다.
9. 是非를 끊고자 함이고 망령되게 破斥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昔人(慧苑)이 勝負의 기질이 높고 是非의 情이 두터워서 上古의 미묘한 뜻을 쓰면서 말하지 아니하고 先賢의 조그마한 흠을 널리 破斥하였음을 비판한 것이다. 한 예로써 ‘娑婆의 形相이 虛空과 같다.’라고 한 것을 문득 “번역하는 사람이 經論을 익히지 못하고 잘못 翻譯場에 참석하여 聖教를 그르침이 一朝에 여기에 이르렀다.” 라고 말하니 先師(賢首)가 譯場에 계시는데 난도질함이 너무 심하였다. 조그마한 흠이 구슬 속에 있다고 깨어버려야 하겠는가? 라고 반론하면서 자신이 慧苑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을 수 없음을,

毒蛇가 손을 물면 베지 않을 수 없으며 毒樹가 뜰에 나면 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사뎐 알음알이가 바퀴자국[轍]을 어지럽게 하면 모름지기 結論을 내어야 한다. 만약 그 잘못됨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생각하고 기술하지 않았으며, 만약 바른 듯하면서 바르지 못한 것은 아울러 結論하여 분명하게 하였다. 眞金을 알려고 하면 구리와 돌을 분명히 하여야 하듯이 不得已한 일이고 생각은 시비를 잊었다. 설사 破斥함이 있더라도 禮樂은 갖추어야 하나니 스스로 自己의 德을 높이고 先賢을 下視할 수는 없는 것이다. 모름지기 처음 시작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그것을 인하여 修正하기는 쉬운 일이다. 비록

그릇된 것을 들어서 옳은 것을 나타낼지라도 스스로 자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지금의 疏文에서는 시비가 전혀 없다.

라고 慧苑이 선학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 엄하게 질타하면서 자신은 선학인 慧苑을 더 엄하게 질타하고 있다.

10. 始末을 고르게 융화하여 首尾를 볼 만하게 하였다. 이 말은 疏를 짓는 大體는 처음은 자세하고 뒤로 갈수록 가볍게 다루게 되지만, 지금 大經의 九會는 始末이 깊고 玄妙함으로써 처음과 끝을 가릴 것 없이 뜻을 만나면 解釋하였다. 다만 처음에 이미 해석한 것은 뒤에 다시 해석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義科章門이 골고루 안배되어 처음도 중간도 끝도 골고루 좋게 하였다.

이러한 열 가지 이유로 자신이 새로운 疏를 짓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의 이유에서 볼 수 있듯이 慧苑의 『刊定記』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목적이란 것이다. 澄觀이 意圖한 바는 적중하여 한때 크게 성행하던 『刊定記』는 점차로 격하되고 이후 慧苑은 한갓 勝負慾이 강하여 스승을 배반하고 異端을 주장한 학승으로 자리매김하고, 澄觀은 宋의 淨源에 의하여 華嚴宗의 第四祖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⁴⁹⁾

49) 板本幸男이 지적하였듯이 慧苑의 晩年부터 45년 간은 慧苑의 『刊定記』가 채용되었지만 澄觀이 慧苑을 심하게 비판한 이후로 慧苑은 스승을 배반한 인물로 낙인 찍혀 華嚴宗의 列祖로부터 제거되었다. 그러나 板本幸男 『華嚴教學の研究』의 第二章 慧苑の教學に對する論難とその吟味(58~110)는 위에서 澄觀이 지적한 열 가지에 대해서 낱말이 음미하여 그 當否를 가리고 있다. 또 同書의 序文에서는 敎判論과 十玄에 대한 논란은 본질적인 문제를 말한 것이지만 그 나머지는 대개가 적절하지 못하며 때로는 표적을 벗어난 것까지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혜원에 대한 종래의 부당한 비난을 除去하고 華嚴教學史에 정당한 지위를 賦與하려는 것이 本研究의 目的이라고 밝히고 있다.